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 (하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하편>>

◆차례◆

Ⅳ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1. 서정 갈래의 흐름

- *찬기파랑가-----1쪽 (20문제)
- *시조 세 편-----6쪽 (31문제)
- *수의 비밀-----14쪽 (18문제)

2. 서사 갈래의 흐름

- *조신의 꿈-----21쪽 (15문제)
- *사씨남정기-----28쪽 (33문제)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46쪽 (40문제)

3. 극 갈래의 흐름

- *봉산 탈춤-----71쪽 (43문제)
- *불모지-----95쪽 (10문제)

4. 교술 갈래의 흐름

- *한중록-----104쪽 (10문제)
- *권태-----110쪽 (7문제)
- *공방전-----115쪽 (7문제)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120쪽 (20문제)

Ⅴ 문학에 관한 태도

1.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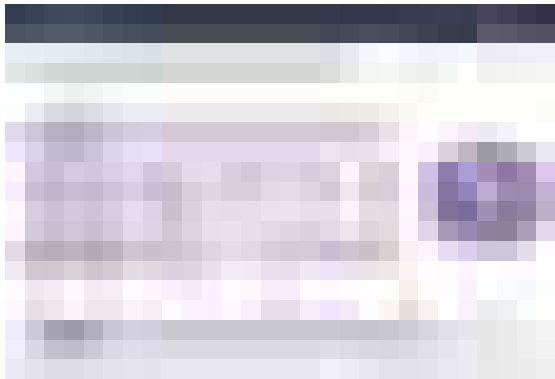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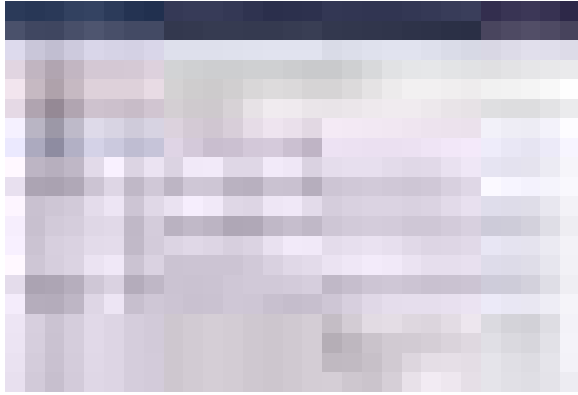
- *만보-----129쪽 (4문제)
- *광문자전-----132쪽 (8문제)
- ▶전체정답-----136쪽
- ▶해설-----138쪽

(버전: **2020.06.26.**)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오류 신고 및 문의 (카톡 ID: pt005pt)

찬기파랑가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열치매
 나토얀 두리
 흰 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새파른 ㉠나리여히
 기랑(耆郎)이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리사 ㉢지벽히
 랑(郎)이 디니다샤온
 ㉣무스미 ㉤흙 좇누아져
 아으 잣사가지 노파
 서리 ㉥몬누을 화판(花判)이여

-충담사, '찬기파랑가'

대전반석고등학교 (대전)

1. ㉠~㉥의 시어 해석으로 옳은 것은?

- ① ㉠: 나라에 ② ㉡: 마음이 ③ ㉢: 절벽에
- ④ ㉣: 마음의 끝을 ⑤ ㉤: 놀려 지내는

과천여자고등학교 (경기)

2.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애상적인 정서가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나타난다.
- ② 정신적인 의미가 자연물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 ③ 세속에서 벗어난 구도자적인 화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향찰로 쓰인 작품으로 해독자에 따라 의미 해석에 차이가 있다.
- ⑤ 정제된 형식미와 세련된 문학적 비유를 통해 서정시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관찰 대상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자가 달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문답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낙구를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한자의 뜻 부분과 소리 부분을 활용하여 우리말 노래를 표기하였다.
- ⑤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4.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 1) '기파랑의 뜻을 따르고자 함'을 드러내는 시행:
- 2) '시련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와 기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어:

현대청운고등학교 (서울)

5. 다음 시어 중 위 시의 시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시어만으로 묶은 것은?

둘, 구름, 나리, 지벽, ㉡, 잣사가지

- ① 둘, 구름, 나리, 지벽
- ② 나리, 지벽, ㉡, 잣사가지
- ③ 나리, 지벽, 잣사가지
- ④ 둘, 지벽, 잣사가지
- ⑤ 구름, 나리, 잣사가지

신록고등학교 (서울)

6. 다음 중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위 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창밖이 어른어른커늘 님만 여겨 펄떡 뛰어 뚝 나서 보니
 님은 아니 오고 으스름 달빛에 널 구름 날 속였구나
 마초아 밤일세망정 행여 낮이런들 님 우일 뻔하여라
- ② 興亡(흥망)이 流水(유수)하니 滿月臺(만월대)도 秋草(추초) | 로다
 오백 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夕陽(석양)에 지나난 客(객)이 눈물계워 흐노라
- ③ 초당(草堂)에 달이 업서 거문고를 베고 누어
 태평성대를 꿈에나 보려투니
 문전(門前)에 수성어적(數聲漁笛)이 잠든 날을 깨와다
- ④ 氷姿玉質(빙자옥질)이여 눈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香氣(향기)노아 黃昏月(황혼월)을 期約(기약)하니
 아마도 雅致高節(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흐노라
- ⑤ 내 마음 버혀 내어 더 달을 만들고저
 구만 리 당텨(長天)의 번 듯이 걸려 이서
 고운 님 겨신 곳에 가 비취어나 보리라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神策究天文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통달했고
 妙算窮地理 오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戰勝功既高 싸움에 이기어 공이 이미 높으니
 知足願云止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 을지문덕,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

(나)

열치매
 나토안 두리
 흰 구름 초초 떠가는 안디하
 새파른 ㉠나리여히
 기랑(耆郎)이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리사 ㉢지백히
 량(郎)이 디니다샤온
 막스미 굶을 좃누아져
 아으 ㉡잣스가지 노파
 ㉣서리 몬누울 ㉤화판(花判)이여

- 충담사, '찬기파랑가'

과천여자고등학교 (경기)

7. (나)의 ㉠~㉤ 중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8.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달리 (가)는 한문으로 창작된 한시의 형태로 전승되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대구와 반어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쓰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9. (나)의 시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둘'은 세상을 밝혀주는 광명의 존재라는 점에서 시적 화자가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기원의 대상이다.
- ② '흰 구름'은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 '나리'는 맑고 깨끗한 속성을 통해 시적대상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순수한 내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아으'는 낙구 감탄사로서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잣스가지'와 '서리'는 시적 대상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상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신목고등학교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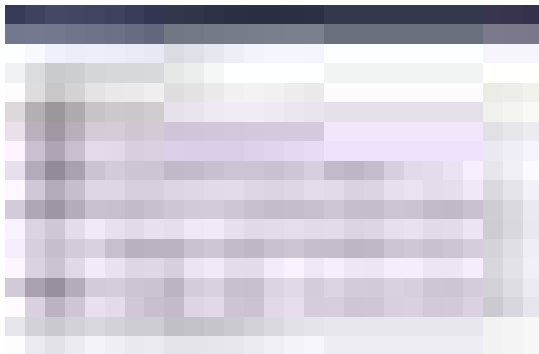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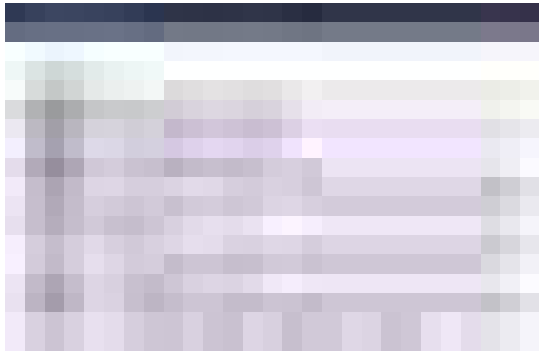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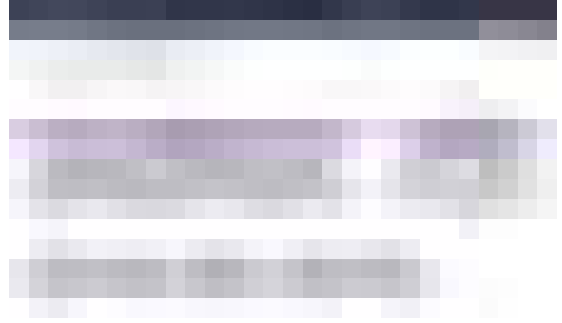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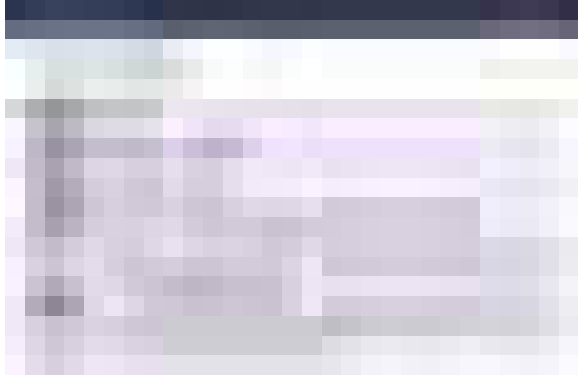
10. (나)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요에 기원을 두며 구전되다 한글 창제 후 한글로 수록되었다.
- ②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창안한 차자 표기법을 통해 문헌에 수록되었다.
- ③ 4음보의 율격으로 대체로 사대부들의 이념과 예술적 취향을 형상화 하였다.
- ④ 고려시대 대표적인 서정갈래로 단연체 및 분연체에서 후렴구가 삽입된 작품도 있었다.
- ⑤ 주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고대 부족 국가 시대에서 삼국시대 초기까지 불리었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1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여러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② 우리말을 한문으로 번역해 한자로 기록한 10구체 향가이다.
- ③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드냐
이시라 허더면 가라마는 ㉡제 구티야
보내고 그리논 정(情)은 나도 몰라 허노라
-황진이

(나)
[A]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뒤희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허라
㉢말습도 우움도 아녀도 물내 도하허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님다 허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허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 1 낙돏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연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허야도 허을 일이 업세라 <제6수>
-윤선도, '만흥'

(다)
㉤일신(一身)이 스자 허였더니 물기것 계워 못 슬니로다
비파(琵琶) 것튼 빈아(蟬蟻) 샷기 사령(使令) 것튼 등에 어
이 갈씩귀 숨위약이 쉰 바퀴 누른 바퀴 핏겨 것튼 가랑니며 보
리알 것튼 수통니며 듀린 니 갓 짠 니 잔 벼룩 왜(倭)벼룩 뛰
는 놈 괴는 놈에 다리 기다헌 모기 부리 썩족흔 모기 슬닌 모
기 여윈 모기 그림아 썩룩이 심(甚)흔 당(唐)비루에 더 어려웨
라
그중에 춤아 못 견딜 쏜 오뉴월(五六月) 복다림에 쉬프린가
허노라
-작자미상

당곡고등학교 (서울)

1.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가)를 감상할 때 ㉡를 '제 구티야 가라마는'의 ㉢도치로 볼 수도 있고, '제 구티야 보내고 그리논 정은 나도 몰라 허노라'의 ㉣행간 걸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① ㉡의 경우 화자의 고집이 센 성격을 강조할 수 있겠군.
- ② '제'가 지칭하는 대상은 ㉢의 경우 '임'이고, ㉣의 경우 화자가 되는군.
- ③ 이별의 책임은 ㉢의 경우와, ㉣의 경우 모두 화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의 경우 자존심과 연모의 감정 사이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효과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의 경우는 중장에 국한되는 해석이고, ㉣의 경우는 중장에서 시작하여 종장까지 이어지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군.

당곡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만흥'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전라도 해남에서 생활할 때 지은 것이다. 작가는 혼탁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적들로부터 탄핵과 모함을 받아 수십 년간이나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자연 속에 은일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연군의 정을 드러낸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 ① '외'를 '님'보다 반갑게 여기는 것은 의도적으로 정적(政敵)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이다.
- ② '삼공(三公)'에 대한 이루지 못한 꿈을 자연에서 대신 찾으며 위안을 삼겠다는 뜻이다.
- ③ '소부허유(巢父許由)'의 삶이 몹시 부럽지만,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 ④ 강산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 '님군 은혜(恩惠)'라고 여기는 데서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임천한흥의 삶을 추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위정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진 것은 사실시조의 형식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 ② 중장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많은 벌레들을 비유와 열거를 활용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 ③ 화자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대상은 종장의 '쉬프리'로 관념적 대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물기것'이 설 새 없이 화자를 물어뜯는 상황을 제시한 것은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⑤ 충효 사상이 아닌 실생활의 사실적 소재를 다룬 것으로 보아 서민(평민)이 창작한 작품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4. ㉠~㉣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탄식과 회한의 정서를 압축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② ㉡: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강산'과 대비되는 '청빈한 삶'을 비유하고 있다.
- ④ ㉣: 시적 화자를 가리키는 말로 착취당하는 백성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⑤ ㉤: '쉬프리'로 상징되는 탐관오리의 해악이 당시에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5.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른 것은?

(다)는 (㉠)을 활용하여 각종 별레의 종류를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별레들을 지칭하는 ‘물-기’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다)는 봉건적 질서가 붕괴되고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가 극심하던 조선시대 후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풍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물-기’의 속성과 윗글이 창작된 배경을 관련 지어 볼 때, ‘물-기’는 (㉡)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
①	의인법	지배층에 착취당하는 백성
②	열거법	지배층에 착취당하는 백성
③	열거법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
④	활유법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
⑤	활유법	임금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학생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구조 속에서 45자 내외의 글자 수로 제한을 두는 등의 엄격함을 형식적 특징으로 삼고 있다. 또한 주 창작자인 양반 사대부의 성향에 맞추어 주로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시조는 조선 후기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시조의 창작 계층이 양반에서 일반 평민층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을 소재로 하여 일상적 삶에서 느끼는 정서와 모습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형식적 측면에서 요구되던 엄격함을 벗어나 다소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가 반영된 시조를 사설시조라 하는데, 윗글은 그러한 사설시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① 학생1: 초장과 중장, 종장의 구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에서, 평시조에서 보인 형식의 엄격함을 벗어나고자 했던 사설시조의 특징이 보이는구나.
- ② 학생2: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는 양반 사대부가 아니라 평민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
- ③ 학생3: 별레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설시조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지.
- ④ 학생4: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레들을 주된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사물을 소재로 활용하고자 했던 사설시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네.

- ⑤ 학생5: 전체 글자의 수를 세어보니 45자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시조의 형식이 지닌 한계를 깨닫고 다소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는 사설시조의 특징이 나타나네.

당곡고등학교 (서울)

7.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 삶이 글의 소재가 되고 있다.
- ② 대상을 풍자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심리가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 ④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서정 갈래에 해당한다.
- ⑤ 감탄의 어조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8. (가)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달리 [A]에는 시적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가)와 달리 [A]는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가)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A]에는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가)에서는 영탄법을 통해, [A]에서는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9. (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아: ‘반가움이 이리허랴’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는 화자가 속세의 인물이 찾아온 것에 달가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상아: ‘만승(萬乘)이 이만허랴’를 통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세속적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수아: ‘소부 허유(巢父許由) | 낙뎃더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속세와 관련된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정아: ‘비길 곳이 업세랴’를 통해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흥취를 즐기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희아: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속세의 삶을 완전히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드나
이시라 허더면 가라마는 제 구티야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호노라

-황진이

(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허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호노라 <제3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허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허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ㅣ 낙뎡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윤선도, '만흥'

당곡고등학교 (서울)

10. 내용과 형식 면에서 (가)와 <보기>를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부른 빛 다호라
도라보실 니물 적곰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허야
두고
니물 허 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팔월(八月)스 보로몬 아으 가배(嘉俳) 나리마론
니물 뫼셔 녀곤 오늘날 가배(嘉俳)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 작자 미상, 「동동(動動)」 중에서

- ① 형식 면에서 두 작품 모두 분연체로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② 두 작품 모두 자신의 외로운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곳곳에 드러나 있군.
- ③ 두 작품 모두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임을 원망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④ (가)의 형식은 민요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기>의 형식과 그 맥을 같이 하는군.
- ⑤ 내용 면에서 (가)는 임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이 드러났다면, <보기>는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군.

송의여자고등학교 (서울)

1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임과 이별한 시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화자의 정서가, (나)는 화자의 자부심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송의여자고등학교 (서울)

12. (가)와 (나)의 형식상 특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수율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후렴구로 연을 나눠 구분하고 있다.
- ③ (가)는 3장 단연체, (나)는 3장 분연체 형식이다.
- ④ (가)와 (나) 모두 3음보의 규칙적인 운율을 보인다.
- ⑤ (가)와 (나) 모두 여음 및 후렴구를 통한 운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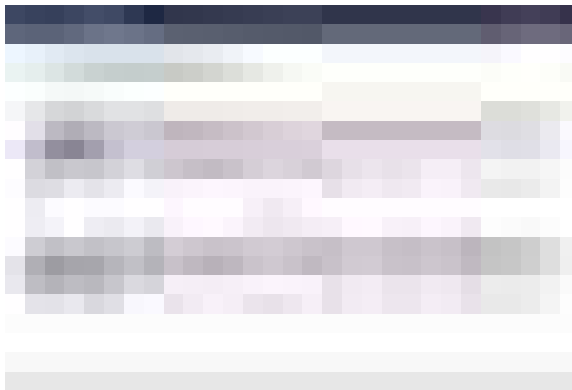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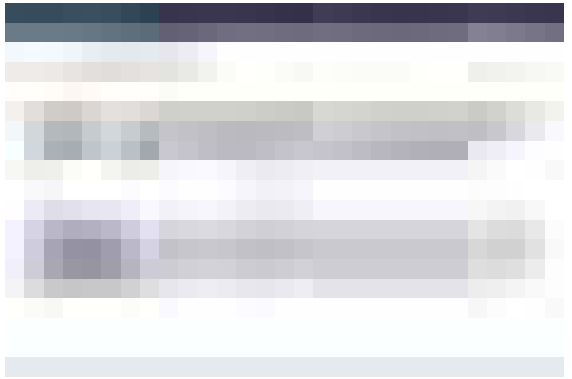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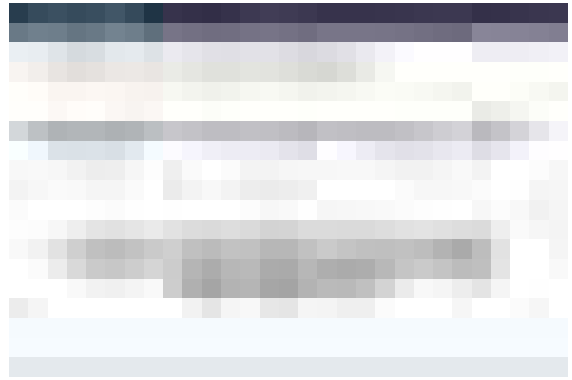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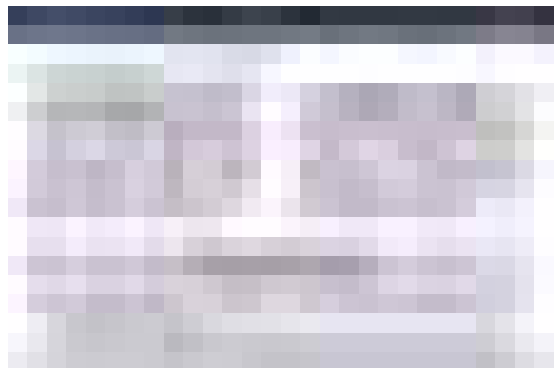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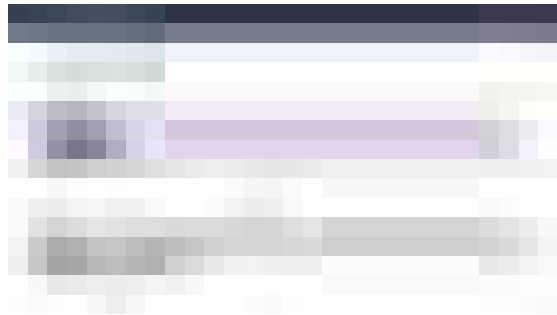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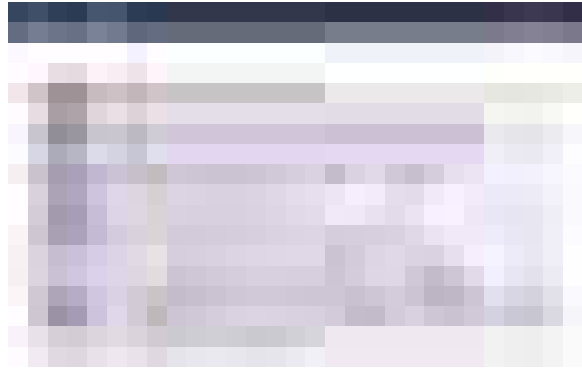
송의여자고등학교 (서울)

13. (가)의 시적 상황을 토대로 ㉠에 담긴 정서와 ㉡의 구체적 내용을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송의여자고등학교 (서울)

14. (나) ㉢의 뜻을 해석한 후,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조되는 두 대상을 명시하여 서술하시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계고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난장이’의 두 아들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난다.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업자가 ‘난장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 가자, ‘난장이’의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간다.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에 두 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야간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었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 갔다. 활판 운전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오프셋 운전기를 들여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다.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었다. 작은 공장들이 채용할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나는 돈도 못 벌고 놀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일터를 찾는다고 해도 낯선 곳이다. 작은 공장이라 작업장은 더 나쁘고 돈도 오르지 않은 채 받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노동자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들어와 중요한 성장기의 삼사 년을 이 공장에서 보냈다. 익힌 기술을 빼놓으면 성장의 기반이랄 것이 없다. 우리 공원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밖에 사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도 맘으로 다진 기반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다. 공원들은 일만 했다. 대다수 공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했다. 무엇 하나 일깨워줄 사람도 없었다. 어른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들려줄 것이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실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만을 그들은 보았었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다. 사장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 집 식구들은 정원 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았다. 그 집 정원에서는 손질이 잘된 나무들이 밝은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랐다. 그 집 나무들은 ‘나무 종합 병원’에서 나온 나무 의사들이 돌보았다. 나도 나무 병원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다. 간판에 “귀덕의 나무는 건강합니까?”라고 써어져 있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병충해 구제 진단·생리적 피해 진단·외과 수술·건강 유지 관리”라고 써어져 있었다. 함께 지났던 어린 조역이 말했다.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스웠는지 모른다. 어린 조역은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

형은 웃옷을 벗어 나의 등에 얹어 주었다. 풀숲으로 들어선 형의 바짓가랑이도 이슬에 젖었다.

“영희를 보았다는 사람은 주장뱅이 아저씨밖에 없었어.”

변명하듯 내가 말했다.

“비행접시가 내렸다는 곳이 여기야.”

“그래 밤새도록 뭘 봤니?”

“형은 내가 그 아저씨 말을 믿었던 것 같아?”

“아니.”

“찾아 나설 데가 있어야지.”

“그만 들어가자.”

“형은 영희가 왜 집을 나간 것 같아?”

“너희들 때문이야.”

어머니는 말했다.

“너희들이 핑핑 놀고 있기 때문에 나갔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게 너희들 책임이야.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게 남아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중략)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꽃 두 송이뿐이었다. 나는 좀 큰 돌맹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

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A] 지섭이 이발관집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쇠고기가 들려 있었다. 대문 앞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아버지가 쇠고기를 부엌 안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부엌 안에 연기가 자욱했다. 형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형은 눈물을 씻으면서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명희네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 때었다. 형은 명희네 안방 문설주를 쪼개 아궁이에 넣고 나왔다. 형의 몸에서 연기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발은기침을 했다.

아버지와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 준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의하면 그는 잘못된 것도 없이 감옥에 갔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아 책을 읽었다. 형과 나는 시멘트 담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집들이 다 헐려 곧바로 동사무소가 보였다.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가 보였다. 그 바른쪽은 슈퍼마켓이 있는 큰길이다. 영희가 한때 일한 빵집이 보였다. 형과 내가 유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뻐다. 아무도 영희가 난장이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부엌에서 고깃국 끓는 냄새가 났다. 고기 굽는 냄새도 났다. 어머니가 상을 내려 행주질을 했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헐어 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내가 대문을 잠갔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다. 형이 상을 들어다 마루에 놓았다. 형은 나를 걱정했다. 괜한 걱정이었다. 그들이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친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 옆자리에서 지섭이 수저를 들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국을 마셨다. 형과 나는 밥을 국에 말았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 영희가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우리의 밥상에 우리 선조들 대부터 묶어 흘려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와 발은기침 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 떨어졌을 것이다.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넣어 주었다.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대로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송늱을 떠왔다. 아버지와 지섭이 송늱을 마셨다. 송늱을 다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형이 이불과 옷가지를 째 보따리를 메고 뒤따라 나갔

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무너진 담 저쪽에서 말없이 지켜 보고 있었다. 우리는 어머니가 싸 놓은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조리·식칼·도마 등을 들고 나왔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메고 나왔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쇠망치 대신 종이와 볼펜을 든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바른손을 들어 집을 가리키고 돌아섰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부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달라붙어 집을 쳐부수었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다.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았다. 지붕이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랐다.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이 나머지 벽에 달라붙었다. 아주 쉽게 끝났다. 그들은 쇠망치를 놓고 땀을 씻었다. 사나이가 종이에 무엇인가 써넣었다. 지섭이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는 사나이를 향해 걸어갔다.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지섭이 물었다. 사나이는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알아 들었다. 그가 말했다.

“삼십 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죠? 시한이 지났어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나이가 돌아서려고 했다.

지섭이 재빨리 말했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천 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렸습니다. 오 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

“그 오백 년이란 게 도대체 뭘니까?”

사나이가 물었다.

“모르시겠어요?”

지섭이 되물었다.

“그만 비켜요.”

“당신이 땀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백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어요? 땀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구.”

설마 하고 서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안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상체를 수그렸다. 두 손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수그린 사나이를 지섭이 또 쳤다. 사나이는 앞으로 푹 쓰러졌다. 우리가 말할 사이도 없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형과 내가 나설 차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팔을 잡아끌었다.

“놔둬라.”

아버지가 말했다.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형과 나는 아버지에게 팔을 잡힌 채 보았다. 일은 간단히 끝났다. 사나이는 일어나고 지섭은 땅에 죽

[B] 은 듯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울었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다.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지섭을 끌고 갔다.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 동사무소를 지나 큰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잠이 나를 눌러 왔다.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끌어내 그 위에 엮으려 했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영희가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고 있었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승의여자고등학교 (서울)

1.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을 차는 일은 공원들이 유일하게 즐기는 놀이이자 휴식이었다.
- ②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우리가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시멘트 담을 허물었다.
- ③ 회사가 현재 문을 닫게 될 위기를 겪고 있어 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 ④ 난장이 가족의 집이 철거될 동안 영희는 가지고 나간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놓고 있었다.
- ⑤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이라 표현한 이유는 대대로 힘 없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난장이 가족이 마련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승의여자고등학교 (서울)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하며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서술자가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 회상을 [B]는 서술자가 자신의 현재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승의여자고등학교 (서울)

3. '지섭'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철거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② 생활 터전을 빼앗은 세력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 ③ 난장이 일가와 철거원 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 ④ 자신과 상대방과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난장이 일가의 형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
- ⑤ 난장이 일가를 의식하면서도 철거된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승의여자고등학교 (서울)

4. 뒷글의 '팬지꽃'과 <보기>의 '매화'에 대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치니,
찬 기운이 새어 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한다.
아무리 얼우려 하인들 봄 뜻이야 앗을소냐
-안민영, '매화사'

- ① '팬지꽃'은 인물에게 교훈을 주고, '매화'는 화자가 예찬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 ② '팬지꽃'은 인물의 희망을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
- ③ '팬지꽃'은 인물이 지닌 소망을 의미하고,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를 의미한다.
- ④ '팬지꽃'은 인물의 욕망을 대리 표현하고, '매화'는 화자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나약한 존재를 의미한다.
- ⑤ '팬지꽃'은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매화'는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승의여자고등학교 (서울)

5. 뒷글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보기>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세계는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내적으로 분리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난장이'와 그의 가족으로 표상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만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게고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난장이’의 두 아들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난다.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업자가 ‘난장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 가자, ‘난장이’의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간다.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딱딱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 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나)

지섭이 이발관집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쇠고기가 들려 있었다. 대문 앞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아버지가 쇠고기를 부엌 안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부엌 안에 연기가 자욱했다. 형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형은 눈물을 씻으면서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명희네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 때었다. 형은 명희네 안방 문설주를 쪼개 아궁이에 넣고 나왔다. 형의 몸에서 연기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발은기침을 했다. 아버지와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 준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의하면 그는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갔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아 책을 읽었다. 형과 나는 시멘트 담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집들이 다 헐려 곧바로 동사무소가 보였다.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가 보였다. 그 바른쪽은 슈퍼마켓이 있는 큰 길이다. 영희가 한때 일한 빵집이 보였다. 형과 내가 유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뻐다. 아무도 영희가 난장이 딸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부엌에서 고깃국 끓는 냄새가 났다. 고기 굽는 냄새도 났다. 어머니가 상을 내려 행주질을 했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헐어 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내가 대문을 잠갔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다. 형이 상을 들어다 마루에 놓았다. 형은 나를 걱정했다. 괜한 걱정이었다. 그들이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친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 옆자리에서 지섭이 수저를 들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국을 마셨다. 형과 나는 밥을 국에 말았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중략>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넣어 주었다.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대로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송늬를 떠왔다. 아버지와 지섭이 송늬를 마셨다. 송늬를 다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다.

(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천 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렸습니다. 오 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

“그 오백 년이란 게 도대체 뭘니까?”

사나이가 물었다.

“모르시겠어요?”

지섭이 되물었다.

“그만 비켜요.”

“당신이 댁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백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어요? 댁을 놓은 게 아납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도.”

설마 하고 서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안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상체를 수그렸다. 두 손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수그린 사나이를 지섭이 또 쳤다. 사나이는 앞으로 푹 쓰러졌다. 우리가 말할 사이도 없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형과 내가 나설 차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팔을 잡아끌었다.

“낙뒤라.”

아버지가 말했다.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형과 나는 아버지에게 팔을 잡힌 채 보았다. 일은 간단히 끝났다. 사나이는 일어나고 지섭은 땅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울었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다.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지섭을 끌고 갔다.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 동사무소를 지나 큰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잠이 나를 놀려 왔다.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끌어내 그 위에 엎드렸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영희가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고 있었다.**

뒷부분의 줄거리 ▶ 김 사장의 집에서 생활하며 기회를 엿보던 영희는 가족의 입주권을 찾아 도망친다. 입주 신청을 마치고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식구들이 이미 떠나 버렸고 아버지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당곡고등학교 (서울)

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노동자들이 모여 앉아서 의견을 주고받을 시간을 빼앗기 위해 축구를 하라는, 회사 측의 술수라고 볼 수 있다.
- ② ㉡: 명희네 집이 이미 헐려서, 그 집의 철거된 잔재를 땀감으로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 ③ ㉢: 철거 되는 순간까지도, 가족의 삶이 갖든 소중한 집에서의 권리와 애정이 갖든 마지막 식사만은 지켜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다.
- ④ ㉣: 오백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갖든 소중한 건축물을 허문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 ⑤ ㉣: 삶의 터전이 무너짐으로써, 영희의 순수하고 가냘픈 영혼이 곧 상처받고 훼손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밑줄 그은 시어 중, 윗글에서의 '난장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 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 ②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김수영, '풀'
- ③ 산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혀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젓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나희덕, '망글'
- ④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
- 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얽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향수'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당곡고등학교 (서울)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 렌즈를 지키는 일이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 내가 말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중에서

[2]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이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 비판의 표시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저항 이미지로서의 이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 할 때, 그 이미지는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되거나 현실을 극복해 가는 힘이 된다.

- ① <보기>-[1]의 ‘달’은 윗글에서 아버지가 현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의지의 근원이다.
- ② <보기>-[1]의 아버지의 말은 윗글의 ‘나’가 아버지와 지섭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된다.
- ③ <보기>-[1]에 구체적으로 서술된 ‘달’에서의 생활은 윗글의 지섭이 이루어 낸 투쟁의 결과물이다.
- ④ <보기>-[2]를 참고하면, 윗글의 ‘행복동’은 현실에 대한 저항을 통해 이룩한 이상 세계이다.
- ⑤ <보기>를 참고하면, ‘달’에서 천문대 일을 보는 것은, 윗글의 ‘행복동’에서 집이 철거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과 일치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계고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난장이’의 두 아들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난다.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업자가 ‘난장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 가자, ‘난장이’의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간다.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중략)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다. 공원들은 일만 했다. 대다수 공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했다. 무엇 하나 일깨워 줄 사람도 없었다. 어른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들려줄 것이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실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만을 그들은 보았었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다. 사장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 집 식구들은 정원 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았다. 그 집 정원에서는 손질이 잘된 나무들이 밝은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랐다. 그 집 나무들은 ‘나무 종합병원’에서 나온 나무 의사들이 돌보았다. 나도 나무 병원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다. 간판에 ‘귀목의 나무는 건강합니까?’라고 씌어져 있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병충해 구제·진단·생리적 피해 진단·외과 수술·건강 유지 관리’라고 씌어져 있었다. 함께 지나던 어린 조역이 말했다.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스웠는지 모른다. 어린 조역은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

형은 웃옷을 벗어 나의 등에 얹어 주었다. 풀숲으로 들어선 형의 바짓가랑이도 이슬에 젖었다. (중략)

“형은 영희가 왜 집을 나간 것 같아?”

“너희들 때문이야.” / 어머니는 말했다.

“너희들이 핑퐁 놓고 있기 때문에 나갔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게 너희들 책임이야.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게 남아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중략)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꽃 두 송이뿐이었다. (중략)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았다. 지붕이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랐다.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이 나머지 벽에 달라 붙었다. 아주 쉽게 끝났다. 그들은 쇠망치를 놓고 땀을 씻었다. 사나이가 종이에 무엇인가 써넣었다. 지섭이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는 사나이를 향해 걸어갔다.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섭이 물었다. 사나이는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알아 들었다. 그가 말했다. / “삼십 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죠? 시한이 지났어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나이가 돌아서려고 했다./ 지섭이 재빨리 말했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천 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㉔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렸습니다. 오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

“그 오백 년이란 게 도대체 뭐니까?” / 사나이가 물었다.

“모르시겠어요?” / 지섭이 되물었다. / “그만 비켜요.”

“당신이 댁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백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어요? 댁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도.”

설마 하고 서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안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상체를 수그렸다. 두 손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수그린 사나이를 지섭이 또 쳤다. 사나이는 앞으로 푹 쓰러졌다. 우리가 말릴 사이도 없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했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형과 내가 나설 차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팔을 잡아끌었다.

“놔둬라.” / 아버지가 말했다. /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형과 나는 아버지에게 팔을 잡힌 채 보았다. 일은 간단히 끝났다. 사나이는 일어나고 지섭은 땅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울었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다.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지섭을 끌고 갔다. 그들은 울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 동사무소를 지나 큰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㉔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잠이 나를 눌러 왔다.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끌어내 그 위에 엮으려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영희가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고 있었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읽을 때,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윗글은 1970년대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도시의 노동자와 빈민들이 겪는 고통과 좌절을 담고 있다. 1970년대는 끊임없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던 시기였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건물은 자꾸만 높아져 갔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했으며,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권리를 탄압하였다. 경제 성장 속에서 자본가들은 더욱 부유해졌지만, 노동자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또한 도시화를 위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 빈민들은 오랜 기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작가는 '난장이 가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 상징적으로 그려내면서 산업화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㉑은 '난장이 가족'이 사는 지역의 이름으로, 실제로는 고통과 좌절만이 가득했던 1970년대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㉒은 건강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는 의미로, 이것을 1970년대 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본다면 자본가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노동자들은 더욱 가난해지며 격차를 보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③ ㉓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1970년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 ④ ㉔은 '오백 년'이라는 구체적 수치로 오랜 기간 이어 온 삶의 터전을 표현한 것으로,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탄생된 업적들이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㉔은 '난장이'인 아버지의 왜소한 모습을 나타낸 표현으로, 1970년대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핍박받으며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1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 하나를 뒷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윗글에서 일부 인물의 행위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행위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담고 있다. 특히 상징화된 사물과 관련된 특정 인물 '영희'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소망마저 지키기 힘든 암담한 현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11. <보기>와 관련지어 뒷글의 인물들을 파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소설 속 인물은 작가가 만든 인격체로서 실제 인간의 성격, 정서, 태도 등이 투영된 존재이다. 뒷글에는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불합리한 상황'(=A의 상황)과 '재개발로 인해 집이 철거되고 집에서 나가야만 하는 부조리한 상황'(=B의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작중 인물들이 느끼게 되는 태도, 정서, 해결 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① '사장'은 공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으로 'A의 상황'을 심화시키는 주체라 할 수 있다.
- ② '어린 조역'은 자신에게 주어진 'A의 상황'을 웃음을 통해 인내하면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영희'가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을 'A의 상황'에 맞서다 공장에서 쫓겨난 '나'와 '형'에게 돌리고 있다.
- ④ '지섭'은 물리적인 폭력까지 동원하며 'B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아버지'는 'B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와 '형'이 'B의 상황'에 대해 저항하려는 행동마저 제지하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게고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난장이'의 두 아들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난다.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업자가 '난장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 가자, '난장이'의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간다.

(나)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 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에 두 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야간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었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 갔다. 활판 운전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오프셋 운전기를 들여왔다.

(마)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꽃 두 송이뿐이었다. 나는 좀 큰 돌멩이

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지섭이 이발관집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쇠고기가 들려 있었다. 대문 앞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아버지가 쇠고기를 부엌 안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바)

사나이가 물었다.

“모르시겠어요?”

지섭이 되물었다.

“그만 비켜요.”

[A] “당신이 밧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백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어요? 밧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구.”

설마 하고 서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안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상체를 수그렸다. 두 손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수그린 사나이를 지섭이 또 쳤다. 사나이는 앞으로 푹 쓰러졌다. 우리가 말할 사이도 없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형과 내가 나설 차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팔을 잡아끌었다.

“놔둬라.”

아버지가 말했다.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신목고등학교 (서울)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영희'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김 사장'을 따라갔다.
- ② ㉠의 이유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들을 배려한 것이다.
- ③ ㉡은 1970년대의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다.
- ④ ㉢은 점점 나빠지는 노동자의 상황과 대비된다.
- ⑤ ㉣은 '지섭'이 '쇠망치를 든 사람들'을 위해 사 온 것이다.

신목고등학교 (서울)

13.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부분이다.
- ② 서민이 누려야 할 것을 자본가가 빼앗는 사회 현실이 드러난다.
- ③ 소외된 이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는 이들을 향한 '지섭'의 분노가 나타난다.
- ④ 지식인인 '지섭'이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⑤ '지섭'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권위에 호소하고 있다.

신목고등학교 (서울)

14. '낙원구 행복동'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쓰시오.

현대청운고등학교 (울산)

15.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등장 인물이 서술하고 있다.
- ②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의 의미를 직접 말하기도 한다.
- ④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사건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 ⑤ 사건과 독자의 거리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비해 가까운 편이다.

<<봉산 탈춤>>

◆핵심 정리

갈래	가면극, 민속극	성격	풍자적 해학적
배경	신문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 사회	계제	'말뚝이'의 양반 조롱
주제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됨. • 각 과장이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됨(옵니버스식 구성). • 언어유희, 과장과 희화화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함. 		

◆전체 구성

인물 소개	'말뚝이'와 비정상적인 외모를 지니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양반 삼 형제'가 등장함.		
제담	글자 놀이	'취발이' 잡아뜯이기	
비슷한 구조의 재담을 반복하면서 '말뚝이'가 '양반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함.	'양반들'이 글자 놀이를 하며 자신들의 무지와 허위식을 스스로 폭로함.	'양반들'이 '취발이'를 잡아뜯이나 금전으로 타협하는 행동을 통해 부패한 사회상을 보여 줌.	
인물 퇴장	일제히 어울러 춤추다가 퇴장함.		

1. 작품에 나타난 제담의 구조

'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담의 시작으로,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함. • 주의를 환기하고 시선을 집중시킴.
↓	
'양반들'의 위엄 (인물 등장)	'양반들'과 그들의 하인인 '말뚝이'가 등장하여 그들의 상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보여 줌.
↓	
'말뚝이'의 조롱 (갈등 형성)	'말뚝이'가 '양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무능과 허위를 조롱하고 비판하여 '양반들'의 위엄이 떨어짐.
↓	
'양반들'의 호통 (갈등 고조)	'양반들'이 '말뚝이'의 말을 들은 후, '말뚝이'에게 호통하면서 그가 한 조롱을 부정함.
↓	
'말뚝이'의 변명 (갈등 허감)	'말뚝이'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조롱을 부정하면서, '양반들'의 위엄을 긍정하는 척함.
↓	
'양반들'의 안심 (갈등 해소)	'양반들'은 '말뚝이'의 변명으로 자신들의 위엄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나, 관객들은 '양반들'의 무지를 깨닫게 됨.
↓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담의 마무리로, 각 제담의 내용을 구분함. • 흥취와 분위기를 고조함. • '말뚝이'와 '양반들'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함.

2. ‘말뚝이’와 ‘양반들’의 재담과 주요 내용

제답 1	제답 2	제답 3	제답 4	제답 5
‘양반’이라는 단어의 뜻풀이에 대한 재담	‘담배’와 ‘흰화’에 대한 재담	‘양반들’을 맞이하는 장단에 대한 재담	‘말뚝이’의 양반 찾기에 대한 재담	‘양반들’의 새처를 정하는 것에 대한 재담



‘양반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말뚝이’는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그러나 ‘양반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해 더 큰 조롱거리가 됨.

3. ‘양반들’의 새처를 정하는 재담에 담긴 의미

‘참나무 울장을 ~ 잡아 뺏습니다.’	‘자파오항에 ~ 자문학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뿔 같은 칼 담배를 ~ 썩어 뺏습니다.’
‘양반들’의 새처를 마구간 모양으로 표현함으로써 ‘양반들’을 가축으로 비하함.	화려한 ‘양반들’의 새처를 묘사함으로써 ‘양반들’의 사치스러움을 폭로하고 부도덕함을 비판함.	‘양반들’을 조롱하고 ‘양반들’의 권위에 대한 ‘말뚝이’의 반감을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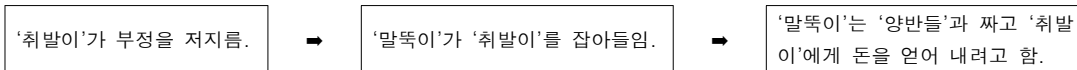
4. ‘양반들’의 글자 놀이에 담긴 의미

글자 놀이 1. 시조 율기	‘양반들’이 부르는 시조가 ‘말뚝이’가 부르는 민요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 줌.
글자 놀이 2. 운자 놀이	‘생원’과 ‘서방’의 운자 놀이는 지명을 나열하거나 의미 없는 용어를 나열해 운자만 맞춘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
글자 놀이 3. 파자 놀이	파자 놀이는 한자의 자획을 나누거나 합쳐서 맞히는 놀이이지만, ‘생원’과 ‘서방’의 파자 놀이는 단순한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음.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폭로하여 당대의 양반 계층을 조롱하고 풍자함.

5. ‘취발이’를 잡아들이는 과정에 담긴 의미



- 죄를 저지른 ‘취발이’를 ‘양반’의 명명으로 ‘말뚝이’가 잡아들이지만, ‘말뚝이’는 ‘양반들’과 타협하여 ‘취발이’에게 뇌물을 받고 그를 풀어 주기로 함.
- 당시 부패한 사회상을 알 수 있으며, 양반의 비리와 서민에 대한 양반의 횡포를 엿볼 수 있음.

6. 등장인물의 특징

‘말뚝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것으로 보아 마부임을 알 수 있음. • 당시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임. • 겉으로는 양반에게 순종하는 듯하지만, 양반의 무능과 허위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함.
‘양반들’ (양반 삼 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옷, 관, 패자, 복건의 차림새에 부채와 장죽을 든 것으로 보아 양반임을 알 수 있음. • 만이 ‘생님(생원)’, 둘째 ‘서방님(서방)’, 막내 ‘도련님(도령)’으로, 외형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음. • 무능하고 어리석은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임. • 위선과 허세를 부리는 모습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풍자의 대상이 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A]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廛)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B]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건건드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매주 밭드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곁 곁이 다 찾아다녀도 생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났습디다.

생원 : 이놈, 뭐야! <중략>

생원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록줄록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중략>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록줄록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생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여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녀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녀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㉔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샌님, 말씀 들으시오. ㉕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 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구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나타난 말뚝이의 말하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담을 시작하는 말을 하며 극의 전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 ②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바꾸며 대상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 ③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일한 음절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경어체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대상을 높이면서도 이면적으로 대상에 대한 조롱을 드러내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봉산탈춤이 공연되던 당시에는 서민들이 지배층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을 풍자하여 그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을 웃게 하였는데, 이는 '비판적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개질량', '개다리소반' 등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들의 위엄을 격하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한 발 가웃'이나 되는 '육모깍지' 등을 맞추어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양반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③ '버드나무 훌뜨기', '바가지장단'과 같이 양반의 신분에 어울리는 소재를 활용하여 양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④ '노새 원님'을 '말뚝이님 내'가 탄다는 표현을 통해 양반과 말뚝이의 상하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울장'을 꽃아 '깃'을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에 대한 묘사를 통해 양반을 가축으로 비하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㉑~㉕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시조와 주제가 같은 민요를 부름으로써 양반의 허세가 자연스레 드러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② ㉒ : 학식을 자랑하는 놀이는 결국 양반들의 허위의를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로 전략하고 있다.
- ③ ㉓ : 기존의 신분적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통해 양반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 당대에도 양반들의 횡포로 인해 고통 받는 피지배층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㉕ :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상을 근거로 부정을 저지른 취발이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의 [A], [B]를 바탕으로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민속극이란 분장을 한 배우가 대화와 몸짓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이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전해져 온 민간 전승의 연극이었기 때문에 민속극의 대사는 고정된 대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윗글의 [A], [B]에서 볼 수 있듯이 민속극은 서양의 연극과 다르게 _____
_____. 이와 같은 민속극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연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 대사를 함으로써 민속극의 형식과 내용은 전승되면서도 공연을 통해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簾)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중략>

생원 : 쉬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들다가 등에 솔질을 샅샅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밭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째짤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생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나) 생원 : 쉬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다)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뿔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랜이 비호(飛虎) 같은데, 생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생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생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생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김진옥·민천식 구술, 「봉산탈춤」

오금고등학교 (서울)

5. (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주의를 환기하여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② ㉡ :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들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
- ③ ㉢ :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 : 관객이 극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대사이며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민속극의 특징을 드러낸다.
- ⑤ ㉤ : 양반의 위엄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후 갈등이 해소되어 재담이 마무리된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6. (나)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양반 문화의 일종인 시조이며 양반이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읊은 것이다.
- ② ㉡는 평민들의 노래인 민요로서 ㉠와 같이 인생무상을 주제로 한 노래이다.
- ③ ㉠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를 통해 말뚝이는 양반들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 ④ ㉣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명을 나열한 말장난으로 관객의 웃음을 유발한다.
- ⑤ ㉠, ㉢, ㉣는 결국 양반의 허세와 무식함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7. (다)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당시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대저 하늘이 백성을 만들 때 네 가지 부류로 만들었다. 넷 중 가장 존귀한 것은 선비이니, 이를 곧 양반이라 칭하며 더 이로운 것은 없다. 밭을 갈지도 않고 장사를 하지도 않지만, 글만 조금 하면 크게는 문과(文科)에 오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진사(進士)는 할 수 있다. 문과에 급제하여 받는 홍패(紅牌)라는 것은 크기는 두 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은 돈주머니와 같다. 진사(進士)는 나이 삼십에 처음으로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름 높은 음관(蔭官)이 될 수 있으니 다른 높은 벼슬도 할 수 있다. 꺾바퀴는 일산(日傘) 바람에 휘어지고 배는 하인들의 ‘예’ 하는 소리에 불려진다. 방에는 귀엣고리 요란한 기생들이요, 정원 나무에는 목청 좋게 우는 학을 키운다. 가난한 선비가 되어 시골에 살아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자기 밭을 먼저 갈게 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을 불러다가 자기 밭을 먼저 김매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부

로 한들 그 누가 나를 닦하라. 그들의 코에 잿물을 들어 부은들, 상투를 잡아맨들, 수염을 잡아 뽑은들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라.”

부자는 그 문서가 씌어지던 중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그만둬. 정말 맹랑하구려. 장차 나를 도적으로 만들 셈이오?”

말을 마치자마자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도망가 버렸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 박지원, 「양반전」

- ① 양반의 부정부패와 부당한 횡포가 있었다.
- ②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했다.
- ③ 천민 계층이 양반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질렀다.
- ④ 신분제의 매개가 용인되어 신분제의 동요가 있었다.
- ⑤ 부를 축적하고 윤리의식을 갖춘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8. 민속극과 현재의 연극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민속극	현재의 연극
㉠	대사, 노래, 춤 등으로 이루어짐	대사 중심으로 이루어짐
㉡	무대 공연 장치 없이 표현함	무대장치를 사전에 제작함
㉢	관객이 극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대체로 관객은 극에 개입하지 않음
㉣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함
㉤	대체로 독립된 여러 개의 장면이 하나로 엮인 피카레스크식 구성임	대체로 한 편의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내용을 이루는 구성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말뚝이 : (버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말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께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나)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塵)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 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دت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라)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밭뚝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걸결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마)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황해도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극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면극 중 하나이다.
- ②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명확하여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③ 가면의 힘을 빌려 실제 사회에서의 귀천이나 상하 관계의 틀을 깨고 하층민의 울분을 해소하는 구실을 한다.
- ④ 양반의 위엄-말뚝이의 조롱-양반의 호통-말뚝이의 변명-양반의 안심 순으로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된다.
- ⑤ 모순되고 억압된 현실을 폭로하고, 한편으로 웃음을 유발하여 감정을 정화하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중 해학과 풍자가 담겨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10.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가) -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 인물 소개 부분으로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나) - ‘양반’이라는 단어의 뜻풀이에 대한 재담으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 ③ (다) - ‘담배’와 ‘흰화’에 대한 재담으로 말뚝이의 거짓 해명에 속는 어리석은 양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④ (라) - ‘말뚝이’의 양반 찾기 재담으로 언어유희, 과장, 열거, 대구 등의 다양한 표현법이 쓰인다.
- ⑤ (마) - 운자 놀이를 통해 ‘말뚝이’가 양반의 무지와 허세를 폭로하고 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1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의 효과 두 가지를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 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났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向)에 터를 잡고, 난간 팔자(八字)로 오련각(五聯閣)과 입구(口)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琥珀柱礎)에 산호(珊瑚) 기둥에 비취 연목(翡翠椽木)에 금파(金波)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짓고, 처다보니 천판자(天板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壯版房)이라. 화문석(花紋席) 치다 펴고 부벽서(付壁書)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담박녕정(澹泊寧靜)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가 완연히 붙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충신(孝悌忠信)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새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 제구(文房諸具) 볼작시면 용장 봉장, 궤(櫃) 두지, 자개 함룡(函籠), 반달이, 셋별같은 놋요강, 놋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칼 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났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 났다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꿀물에다 축여 났다네. (긋거리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들 : (새처 안에 앉는다.)
 (나) 생원 : 그러면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나?
 서방 :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蓖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 부르게.
 서방 :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서방 : 하하, 그것 형님 잘 맞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바리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다)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馨)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여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문현여자고등학교 (부산)

12. 윗글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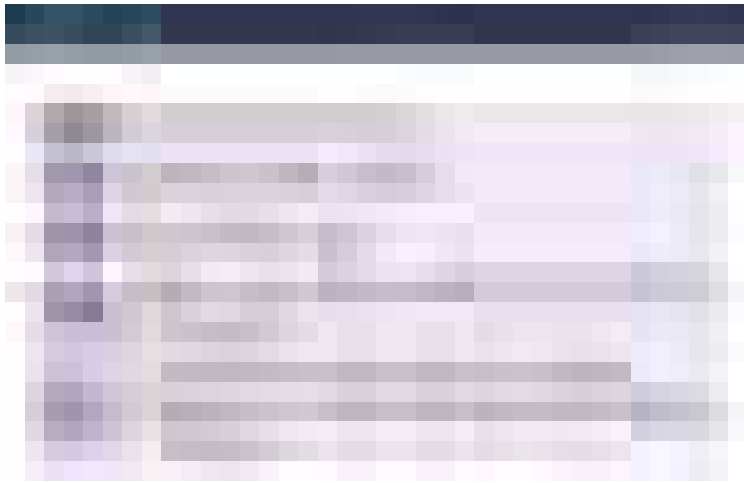
- ① ‘말뚝이’는 당시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신분 상승의 의지가 강하다.
- ② ‘말뚝이’는 표면적으로는 양반에게 반항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양반들에게 복종하고 있다.
- ③ ‘양반들’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조선 전기 시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 ④ ‘양반들’은 권위에 쉽게 굴복하고, 자신의 무능과 허위를 남에게 전가하는 인물이다.
- ⑤ ‘취발이’는 경제적 여건을 갖춘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당시 세력이 막강했음을 엿볼 수 있다.

문현여자고등학교 (부산)

13.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서 장면 전환이 자유로운 민속극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을 (가)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문현여자고등학교 (부산)

14. (나), (다)를 통해 양반의 어떠한 면을 풍자하고 있는지 각각 서술하십시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선희궁께서 13일 내게 편지하시되
 “어젯밤 소문은 더욱 무서우니, 일이 이왕 이리된 바에는 내가 죽어 모르거나, 살면 종사를 붙들어야 옳고, 세손을 구하는 일이 옳으니, 내 살아 빈궁을 다시 볼 줄 모르겠노라.”
 라고만 하시니, 내 그 편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니라. 하지만 그날 큰 변이 날 줄 어이 알았으리오.
 그날 아침에 영조께서 무슨 일로 자리에 좌정하려 하시며 경희궁에 있는 경현당 관광청(觀光廳)에 계시니, 선희궁께서 가서 울며 고하시되
 “동궁의 병이 점점 깊어 바랄 것이 없으니,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리에 못 할 일이나, 옥체를 보호하고 세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사오니, ㉠대 처분을 하소서.”
 하시니라. 또
 “설사 그리하신다 해도 부자의 정이 있고 병으로 그리된 것이니 병을 어찌 꾸짖으리이까. 처분은 하시나 은혜를 끼치시고 세손 모자를 평안하게 하소서.”
 하시니, 내 차마 그 아내로 이 일을 옳다고는 못 하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저 나도 경모궁을 따라 죽어 모르는 것이 옳되, 세손 때문에 차마 결단치 못하니라. ㉡내 겪은 일이 기구하고 흉독함을 서러워할 뿐이라.
 영조께서 선희궁의 말을 들으시고, 조금도 주저하며 지체 하심이 없이 창덕궁 거동령을 급히 내신지라. 선희궁께서는 모자의 인정을 어려이 끊고 대의를 잡아 말씀을 아뢰시고 바로 가슴을 치며 혼절하시니라. 그리고 당신 계신 양덕당에 오셔서 식음을 끊고 눈물 흘리며 누워 계시니, 만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리오. (중략)
 경모궁께서 나가신 후 즉시 영조의 엄노하신 음성이 들리니라. 휘령전이 덕성합과 멀지 않으니, 담 밑으로 사람을 보내니라. ㉢경모궁께서는 벌써 곤룡포를 벗고 엎드려 계시더라 하니라. 대처분이신 줄 알고, 천지 망극하고 가슴이 찢어지니라.
 거기 있어 부질없으니 세손 계신 데로 와서, 서로 붙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 오후 세 시 즈음에 내관이 들어와 밧소주방의 쌀 담은 뒤주를 내라 하신다 하니, 이 어찌 된 말이고. 황황하여 궤를 내지는 못하고, 세손이 망극한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휘령전으로 들어가
 “아비를 살려 주소서.”
 하니, 영조께서
 “나가라.”
 명하시니라. 세손께서 나와서 휘령전에 딸린 왕자의 재실(齋室)에 앉아 계시니, ㉣그 정경이야 고급 천지간에 다시 없더라. 세손을 내보낸 후 하늘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으니, 내 어찌 한때나마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으리오.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하나, 곁에 있는 사람이 앓음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죽고자 하되 한 토막 쇠조각이 없으니 하지 못하니라. 송문당에서 휘령전으로 나가는

건복문 밑으로 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영조께서 칼 두드리시는 소리와 경모궁께서
 “아버님, 아버님,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들을 것이니, 이리 마소서.”
 애원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 소리를 들으니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고 눈앞이 막막하니, 가슴을 두드려 아무리 한들 어찌하리오.
 당신 용력(勇力)과 장한 기운으로 뒤주에 들라 하신들 아무쪼록 아니 드시지, 어찌 마침내 들어가시던고. 처음은 뛰어나가려 하시다가 이기지 못하여 그 지경이 되시니, 하늘이 어찌 이토록 하시고, 만고에 없는 설움뿐이라. 내 문 밑에서 울부짖되 경모궁께서는 응하심이 없더라.
 세자가 벌써 폐위되었으니 그 처자가 편안히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요, 세손을 그냥 밖에 두었으니 어찌 될까 두렵고 조마조마하여, 그 문에 앉아 영조께 글을 올리니라.
 “처분이 이러하시니 죄인의 처자가 편안히 대궐에 있기도 황송하옵고, 세손을 오래 밖에 두기는 귀중한 몸이 어찌 될지 두렵사오니, ㉤이제 본집으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그 끝에
 “천은(天恩)으로 세손을 보전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고 써 가깝스로 내관을 찾아 드리라 하였더라. 오래지 아니하여 오빠가 들어오셔서
 “동궁을 폐위하여 서인으로 만드셨다 하니, 빈궁도 더 이상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라. 위에서 본집으로 나가라 하시니 가마가 들어오면 나가시고, 세손은 남여(藍輿)를 들여오라 하였으니 그것을 타고 나가시리이다.”
 하시니, 서로 붙들고 망극 통곡하니라. 나는 업혀서 청취문에서 저승전 앞문으로 가 거기서 가마를 타니, 윤 상궁이란 내인이 가마 안에 함께 타니라. 별감들이 가마를 메고, 허다한 상하 3내인이 다 뒤를 따르며 통곡하니, 만고 천지간에 이런 경상(景狀)이 어디 있으리오. 나는 가마에 들 제 기운이 막혀 인사를 모르니, 윤 상궁이 주물러 겨우 명(命)은 붙었으나 오죽하리오. (후략)
 -혜경궁 홍씨, ‘한중록’

현대청운고등학교 (울산)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도세자의 참변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자전적인 글이다.
- ② 품위있는 궁중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절실하고 간곡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 ③ 당시 사건의 상황이나 당대의 현실, 대상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조선 후기에 여성이 창작의 주체로 활동하였고 한글 사용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작가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임오화변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묘사하여 역사설을 부각시키고 있다.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모궁은 영조가 내린 명령을 따라 순순히 뒤주 안으로 들어갔다.
- ② 혜경궁은 경모궁의 대처분을 알고 자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③ 경모궁의 대처분 이후 세손은 대궐을 떠나 궁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 ④ 선희궁은 경모궁의 대처분을 영조에게 청한 후 모자간의 정 때문에 매우 괴로워 하였다.
- ⑤ 영조는 아비를 살려달라는 세손의 청을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하고 있다.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선희궁은 임금과 세손을 보호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 세자의 폐위를 영조에게 청하고 있군.
- ② ㉡ : 선희궁의 행동에 대하여 분노하고 서러워하는 글쓴이의 심정이 직접 드러나 있군.
- ③ ㉢ : 경모궁이 세자의 지위에서 이미 폐위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 : 글쓴이는 자신이 체험한 사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군.
- ⑤ ㉤ : 혜경궁이 친정집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세자가 폐서인이 되면서 자신도 서인이 되었기 때문이겠군.

신복고등학교 (서울)

4. 다음은 윗글의 내용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영조가 뒤주를 내라 함.
- ㉡ '나'가 영조께 편지를 씀.
- ㉢ 경모궁이 뒤주 안으로 들어감.
- ㉣ '나'자결하고자 했으나 실패함.
- ㉤ 선희궁이 영조께 경모궁의 대처분을 고함.
- ㉥ 세손이 영조에게 아비를 살려 달라고 애원함.
- ㉦ 선희궁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나'가 눈물을 흘림.

- ① 사-㉡-㉢-㉣-㉤-㉥-㉠-나
- ② 사-㉡-㉢-㉤-㉣-㉥-㉠-나
- ③ 사-㉡-㉢-㉤-㉥-㉣-㉠-나
- ④ 사-㉢-㉡-㉣-㉤-㉥-㉠-나
- ⑤ ㉡-사-㉤-㉢-㉣-㉥-㉠-나

신복고등학교 (서울)

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땅에 엎드려 관(冠)을 벗게 하고, 맨발로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扣頭] 하고 이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전교를 내려 자결할 것을 재촉하니, 세자가 조아린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신만과 좌의정 홍봉한, 판부사 정휘량(鄭暉良), 도승지 이이장(李彝章), 승지 한광조(韓光肇) 등이 들어왔으나 미처 진언(陳言)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세 대신 및 한 광조 네 사람의 파직을 명하니, 모두 물러갔다. 세손이 들어와 관(冠)과 포(袍)를 벗고 세자의 뒤에 엎드리니, 임금이 안아다가 시강원으로 보내고 김성응(金聖應) 부자(父子)에게 수위(守衛)하여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칼을 들고 연달아 차마 들을 수 없는 전교를 내려 동궁의 자결을 재촉하니, 세자가 자결하고자 하였는데 춘방(春坊)의 여러 신하들이 말렸다. 임금이 이어서 폐하여 서인을 삼는다는 명을 내렸다. (중략) 세자가 곡하면서 다시 들어가 땅에 엎드려 애걸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의 전교는 더욱 엄해지고 영빈(映嬪)이 고한 바를 대략 진술하였는데, 영빈은 바로 세자의 탄생모(誕生母) 이씨(李氏)로서 임금에게 밀고(密告)한 자였다

- 『조선왕조실록』 영조 38년 윤 5월 18일을 올해 두 번째 기사 중에서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에 비해 실제로 체험한 일에 대한 작가의 주관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보기>는 윗글과 달리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 ④ 윗글과 <보기>와 달리 품위 있는 궁중용어와 전어한 문체가 사용되었다.
- ⑤ <보기>는 윗글에 비해 더 긴 시간동안 벌어진 사건들을 나열한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선희궁께서 13일 내게 편지하시되
 “어젯밤 소문은 더욱 무서우니, 일이 이왕 이리된 바에는
 내가 죽어 모르거나, 살면 종사를 붙들어야 옳고, 세손을
 구하는 일이 옳으니, 내 살아 빈궁을 다시 볼 줄 모르겠노
 라.”
 라고만 하시니, 내 그 편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니라. 하
 지만 그날 큰 변이 날 줄 어이 알았으리오.
 그날 아침에 영조께서 무슨 일로 자리에 좌정하려 하시며
 경희궁에 있는 경현당 관광청(觀光廳)에 계시니, 선희궁께
 서 가서 울며 고하시되
 “동궁의 병이 점점 깊어 바랄 것이 없으니,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리에 못 할 일이나, 옥체를 보호
 하고 세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사오니, 대처
 분을 하소서.”
 하시니라. 또
 “설사 그리하신다 해도 부자의 정이 있고 병으로 그리된
 것이니 병을 어찌 꾸짖으리이까. 처분은 하시나 은혜를 끼
 치시고 세손 모자를 평안하게 하소서.”
 하시니, 내 차마 그 아내로 이 일을 옳다고는 못 하나 어
 쨌 수 없는 일이라. 그저 나도 경모궁을 따라 죽어 모르는
 것이 옳되, 세손 때문에 차마 결단치 못하니라. 내 겪은 일
 이 기구하고 흉독함을 서러워할 뿐이라.
 영조께서 선희궁의 말을 들으시고, 조금도 주저하며 지체
 하심이 없이 창덕궁 거동령을 급히 내신지라. 선희궁께서는
 모자의 인정을 어려이 끊고 대의를 잡아 말씀을 아뢰시고
 바로 가슴을 치며 혼절하시니라. 그리고 당신 계신 양덕당
 에 오셔서 식음을 끊고 눈물 흘리며 누워 계시니, 만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리오. (중략)
 경모궁께서 나가신 후 즉시 영조의 엄노하신 음성이 들리
 니라. 휘령전이 덕성합과 멀지 않으니, 담 밑으로 사람을
 보내니라. 경모궁께서는 벌써 곤룡포를 벗고 엎드려 계시더
 라 하니라. 대처분이신 줄 알고, 천지 망극하고 가슴이 찢
 어지니라.
 거기 있어 부질없으니 세손 계신 데로 와서, 서로 붙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 오후 세 시 즈음에 내관이 들어와
 밧소주방의 쌀 담는 뒤주를 내라 하신다 하니, 이 어찌 된
 말인고. 황황하여 궤를 내지는 못하고, 세손이 망극한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휘령전으로 들어가
 “아비를 살려 주소서.”
 하니, 영조께서
 “나가라.”
 명하시니라. 세손께서 나와서 휘령전에 딸린 왕자의 재실
 (齋室)에 앉아 계시니, 그 정경이야 고금 천지간에 다시 없
 더라. 세손을 내보낸 후 하늘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으니, 내 어찌 한때나마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으리오.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하나, 곁에 있는 사람이 앓음으
 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죽고자 하되 한 토막 쇠조
 각이 없으니 하지 못하니라. 송문당에서 휘령전으로 나가는

건복문 밑으로 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영조께서
 칼 두드리시는 소리와 경모궁께서
 “아버님, 아버님,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들을 것이니, 이리 마소서.”
 애원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 소리를 들으니 간장이 마
 디마디 끊어지고 눈앞이 막막하니, 가슴을 두드려 아무리
 한들 어찌하리오.
 당신 용력(勇力)과 장한 기운으로 뒤주에 들라 하신들 아
 무쪼록 아니 드시지, 어찌 마침내 들어가시던고. 처음은 뛰
 어나가려 하시다가 이기지 못하여 그 지경이 되시니, 하늘
 이 어찌 이토록 하시고, 만고에 없는 설움뿐이라. 내 문 밑
 에서 울부짖되 경모궁께서는 응하심이 없더라.
 세자가 벌써 폐위되었으니 그 처자가 편안히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요, 세손을 그냥 밖에 두었으니 어찌 될까 두렵고
 조마조마하여, 그 문에 앉아 영조께 글을 올리니라.
 “처분이 이러하시니 죄인의 처자가 편안히 대궐에 있기도
 황송하옵고, 세손을 오래 밖에 두기는 귀중한 몸이 어찌 될
 지 두렵사오니, 이제 본집으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그 끝에
 “천은(天恩)으로 세손을 보전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고 써 가깝스로 내관을 찾아 드리라 하였더라. 오래지
 아니하여 오빠가 들어오셔서
 “동궁을 폐위하여 서인으로 만드셨다 하니, 빈궁도 더 이
 상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라. 위에서 본집으로 나가라 하시
 니 가가가 들어오면 나가시고, 세손은 남여(藍輿)를 들여오
 라 하였으니 그것을 타고 나가시리이다.”
 하시니, 서로 붙들고 망극 통곡하니라.(후략)
 -혜경궁 홍씨, ‘한중록’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6. 밑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감정을 배제하면서 당대에 나타난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연상의 과정을 통해 서술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사건의 진행 양상에 따라 서술자를 다르게 설정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 ④ 궁중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목격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절망적인 심경과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7.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 '선희궁'은 종사의 안정을 위해 아들인 '경모궁'을 대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 ② 학생 2: '선희궁'은 '경모궁'에 대한 대처분을 주장하면서 도 모자간의 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 ③ 학생 3: '나'는 뒤주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경모궁'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린 '영조'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어.
- ④ 학생 4: '영조'는 '경모궁'에 대한 대처분을 진행하면서 손자인 '세손'의 요청마저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 비정함을 보여주고 있어.
- ⑤ 학생 5: '경모궁'이 폐위가 되어 신분적 특권마저 사라지게 된 상황 속에서, '나'는 '세손'의 안위를 지키고자 '영조'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어.

신목고등학교 (서울)

8. 아래의 ㉠~㉣에 들어갈 말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한중록'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혜경궁 홍씨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여 기록한 부분 둘째, 사도세자의 탄생과 죽음까지를 기록한 부분 셋째, 누명을 쓰고 죽은 친정 식구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기록한 부분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혜경궁 홍씨 본인의 생애를 기록한 부분은 (㉠)의 성격에 가깝고, 사도 세자의 일생을 기록한 부분은 (㉡)의 성격에 가까우며, 친정의 신원을 다룬 부분은 사도 세자가 죽고 정조가 등극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반대파들이 친정 식구들에게 어떠한 죄를 뒤집어씌웠는지를 자신의 기억과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반박하는 내용이 중심이므로 (㉢)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격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내용을 후대의 누군가가 '한중록'으로 엮은 것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희궁께서 13일 내게 편지하시되

“어젯밤 소문은 더욱 무서우니, 일이 이왕 이리된 바에는 내가 죽어 모르거나, 살면 종사를 붙들어야 옳고, 세손을 구하는 일이 옳으니, 내 살아 빈궁을 다시 볼 줄 모르겠노라.”

라고만 하시니, 내 그 편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니라. 하지만 그날 큰 변이 날 줄 어이 알았으리오.

그날 아침에 영조께서 무슨 일로 자리에 좌정하려 하시며 경희궁에 있는 경현당 관광청(觀光廳)에 계시니, 선희궁께서 가서 울며 고하시되

“동궁의 병이 점점 깊어 바랄 것이 없으니,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리에 못 할 일이나, 옥체를 보호하고 세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사오니, 대처분을 하소서.”

하시니라. 또

“설사 그리하신다 해도 ㉠부자의 정이 있고 병으로 그리된 것이니 병을 어찌 꾸짖으리이까. 처분은 하시나 은혜를 끼치시고 세손 모자를 평안하게 하소서.”

하시니, 내 차마 그 아내로 이 일을 옳다고는 못 하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저 나도 경모궁을 따라 죽어 모르는 것이 옳되, 세손 때문에 차마 결단치 못하니라. 내 겪은 일이 기구하고 흉독함을 서러워할 뿐이라.

영조께서 선희궁의 말을 들으시고, 조금도 주저하며 지체하심이 없이 창덕궁 거동령을 급히 내신지라. 선희궁께서는 ㉡모자의 인정을 어려워 끊고 대의를 잡아 말씀을 아뢰시고 바로 가슴을 치며 혼절하시니라. 그리고 ㉢당신 계신 양덕당에 오셔서 식음을 끊고 눈물 흘리며 누워 계시니, 만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리오. (중략)

경모궁께서 나가신 후 즉시 영조의 엄노하신 음성이 들리니라. 휘령전이 덕성합과 멀지 않으니, 담 밑으로 사람을 보내니라. 경모궁께서는 벌써 곤룡포를 벗고 엎드려 계시더라 하니라. 대처분이신 줄 알고, 천지 망극하고 가슴이 찢어지니라.

거기 있어 부질없으니 세손 계신 데로 와서, 서로 붙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 오후 세 시 즈음에 내관이 들어와 밧소주방의 쌀 담은 뒤주를 내라 하신다 하니, 이 어찌 된 말이고. 황황하여 궤를 내지는 못하고, 세손이 망극한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휘령전으로 들어가

“아비를 살려 주소서.”

하니, 영조께서

“나가라.”

명하시니라. 세손께서 나와서 휘령전에 딸린 왕자의 재실(齋室)에 앉아 계시니, 그 정경이야 고금 천지간에 다시 없더라. 세손을 내보낸 후 하늘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으니, 내 어찌 한때나마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으리오.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하나, 곁에 있는 사람이 앓음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죽고자 하되 한 토막 쇠조각이 없으니 하지 못하니라. 승문당에서 휘령전으로 나가는

건복문 밑으로 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영조께서 칼 두드리시는 소리와 경모궁께서

“아버님, 아버님,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들을 것이니, 이리 마소서.”

애원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 소리를 들으니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고 눈앞이 막막하니, 가슴을 두드려 아무리 한들 어찌하리오.

㉔당신 용력(勇力)과 장한 기운으로 뒤주에 들라 하신들 아무쪼록 아니 드시지, 어찌 마침내 들어가시던고. 처음은 뛰어나가려 하시다가 이기지 못하여 그 지경이 되시니, 하늘이 어찌 이토록 하시고. 만고에 없는 설움뿐이라. 내 문 밑에서 울부짖되 경모궁께서는 응하심이 없더라.

세자가 벌써 폐위되었으니 그 처자가 편안히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요, 세손을 그냥 밖에 두었으니 어찌 될까 두렵고 조마조마하여, 그 문에 앉아 영조께 글을 올리니라.

“처분이 이러하시니 죄인의 ㉕처자가 편안히 대궐에 있기도 황송하옵고, 세손을 오래 밖에 두기는 귀중한 몸이 어찌 될지 두렵사오니, 이제 본집으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그 끝에

“천은(天恩)으로 세손을 보전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고 써 가깝스로 내관을 찾아 드리라 하였더라. 오래지 아니하여 오빠가 들어오셔서

“동궁을 폐위하여 서인으로 만드셨다 하니, 빈궁도 더 이상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라. 위에서 본집으로 나가라 하시니 가가가 들어오면 나가시고, 세손은 남여(藍輿)를 들여오라 하였으니 그것을 타고 나가시리이다.”

하시니, 서로 붙들고 망극 통곡하니라. 나는 업혀서 청취 문에서 저승전 앞문으로 가 거기서 가마를 타니, 윤 상궁이란 내인이 가마 안에 함께 타니라. 별감들이 가마를 메고, 허다한 상하 3내인이 다 뒤를 따르며 통곡하니, 만고 천지간에 이런 경상(景狀)이 어디 있으리오. 나는 가마에 들 제 기운이 막혀 인사를 모르니, 윤 상궁이 주물러 겨우 명(命)은 붙었으나 오죽하리오. (후략)

-혜경궁 홍씨, ‘한중록’

현대청운고등학교 (울산)

10. ㉔~㉕에 대한 해석으로 잘못된 것은?

- ① ㉔ : ‘부자’는 영조와 사도 세자를 가리킨다.
- ② ㉔ : ‘모자’는 선희궁과 경모궁을 가리킨다.
- ③ ㉕ : ‘당신’은 선희궁을 가리킨다.
- ④ ㉕ : ‘당신’은 영조를 가리킨다.
- ⑤ ㉕ : ‘처자’는 혜경궁 홍씨와 세손을 가리킨다.

- 끝 -

현대청운고등학교 (울산)

9. 밑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은?

- ① 혜경궁 홍씨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 ② 선희궁은 영조가 경모궁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다.
- ③ 세손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 ④ 선희궁은 영조에게 자기 아들을 벌할 것을 건의하였다.
- ⑤ 혜경궁 홍씨는 영조에게 세손을 보전해 달라고 편지를 썼다.

IV-1 찬기파랑가

1.④ 2.① 3.음성 상징어는 없음 4.1)무스미 굶을 쫓누
아져 2)잣사가지 5.③ 6.④ 7.④ 8.⑤ 9.④ 10.② 11.②
12.⑤ 13.③ 14.나라: 맑고 깨끗한 모습, 직벽: 원만하
고 강직한 성품, 잣사가지: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
상 15.⑤ 16.⑤ 17.④ 18.향찰, 낙구 19.④ 20.⑤

IV-1 시조 세 편

1.① 2.④ 3.③ 4.③ 5.③ 6.① 7.② 8.① 9.① 10.⑤
11.③ 12.③ 13.떠나려는 임을 붙잡지 않고 그냥 보
내 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회한임. 14.누
군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의 벼슬보다
낫다고 하던데 천자의 자리가 이만하랴 / 속세의 삶
보다 자연 속의 삶을 더 만족스러워함. 15.⑤ 16.①
17.도치나 행간 걸침을 통해 중의성을 가짐. 18.㉠:
임 ㉡: (내가)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임이 구태여 갔으
라마는, (임을) 보내고 19.③ 20.⑤ 21.③ 22.③ 23.①
24.③ 25.㉠'제'는 임을 의미 ㉡'제'는 화자를 의미
26.말씀도 우움도 아녀도 몬내 도하호노라 27.① 28.
② 29.③ 30.④ 31.④

IV-1 수의 비밀

1.② 2.① 3.⑤ 4.㉠: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고 정확하
기 ㉡: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 5.⑤ 6.④ 7.⑤
8.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정화되므로 그때에 수를 완
성하려고 / 수 안에 넣을 아직 가치 있는 보물이 없
기 때문에 9.③ 10.③ 11.④ 12.④ 13.④ 14.⑤ 15.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16.② 17.⑤ 18.
1)㉠: 임과의 재회, ㉡:종교적 깨달음

IV-1 조신의 꿈

1.④ 2.① 3.③ 4.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신라 시대, 명
주 날리군, 강릉 해현령 등)를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
된다. 또 '돌미륵'이나 '정토사' 등을 증거물로 삼아
이야기에 신빙을 더하고 있으며, 사찰의 유래를 밝히
고 있다는 점에서 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
①⑤ 6.① 7.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버들솜 8.① 9.①④
10.④ 11.① 12.⑤ 13.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신라 시
대, 명주 날리군, 강릉 해현령 등)를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또 '돌미륵'이나 '정토사' 등을 증거물로 삼
아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며, 사찰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14.② 15.⑤

IV-2 사씨남정기

1.⑤ 2.⑤ 3.⑤ 4.⑤ 5.① 6.③ 7.⑤ 8.③ 9.⑤ 10.②
11.사람의 속마음은 알기 어렵다 12.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으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사건
의 정황을 해설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
다. 또한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처첩
제도에 따른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13.⑤ 14.㉠: 권
선징약 ㉡: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
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15.① 16.② 17.⑤ 18.㉠: 축첩 문제 제기 ㉡: 권선징
약 19.④ 20.⑤ 21.⑤ 22.⑤ 23.④ 24.④ 25.② 26.④
27.⑤ 28.① 29.② 30.① 31.국문 소설로 인한 작가층
의 확대로 다양한 소설의 유행함.

IV-2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⑤ 2.③ 3.② 4.② 5.영희가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고 있었다. 6.④ 7.② 8.⑤ 9.④ 10.
영희가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고
있었다. 11.② 12.④ 13.⑤ 14.반어법 / 지명을 반어
적으로 설정하여 소외 계층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함. 15.② 16.⑤ 17. 18.① 19.⑤ 20.① 21.③ 22.
② 23.⑤ 24.③ 25.① 26.1)소외 계층을 상징함. 2)지
명을 반어적으로 설정하여 소외 계층의 빈곤하고 참
혹한 삶을 강조함. 27.③ 28.⑤ 29.② 30. 31.④ 32.③
33.⑤ 34.① 35.④ 36.③ 37. 지명을 반어적으로 설
정하여 소외 계층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함. 38.
③ 39.⑤ 40.④

IV-3 봉산 탈춤

1.② 2.③ 3.⑤ 4.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
아서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었다. 5.⑤
6.③ 7.① 8.⑤ 9.② 10.⑤ 11.재담과 재담을 구분한
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 12.⑤ 13.채찍을 가
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새처 방으로 들어
간 양을 한다 14.(나):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풍자
한다. (다): 양반들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풍자한다.
15.② 16.③⑤ 17.② 18.③ 19.③ 20.⑤ 21.① 22.③
23.④ 24.④ 25.④ 26.③ 27.② 28.① 29.③ 30.⑤ 31.
② 32.부패와 황금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33.⑤
34.① 35.④ 36.(1)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2)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
고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37.③ 38.④ 39.②

40.⑤ 41.(1) 말뚝이의 변명, 말뚝이의 조롱, 재담의 시작 (2) (다)와 (라)는 모두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지만, (다)는 양반층이 주로 향유하던 시조이고, (라)는 평민층이 주로 향유하던 민요이다. 42.③ 43.②

IV-3 불모지

1.⑤ 2.② 3.③ 4.④ 5.최 노인 일가의 몰락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냄. 6.⑤ 7.② 8.① 9.① 10.④

IV-4 한중록

1.⑤ 2.① 3.② 4.③ 5.⑤ 6.④ 7.③ 8.a : 자서전 b : 연대기 c : 회고록 9.② 10.④

IV-4 이상

1.① 2.④ 3.③ 4.③ 5.불나비, 사는 방법을 아는 정열의 생물이기에 6.⑤ 7.③

IV-4 공방전

1.② 2.① 3.④ 4.④ 5.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 백성들이 농사를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게 하여 해를 끼치거나 뇌물이 난무하고 청탁을 버젓이 행하게 함. 6.① 7.④

IV-4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1.④ 2.④ 3.② 4.③ 5.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야경꾼, 이발쟁이 6.⑤ 7.② 8.2-1-1.왕궁의 음탕, 붙잡혀간 소설가, 월남 파병 2-1-2.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야경꾼, 이발쟁이 2-2.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9.⑤ 10.① 11.③ 12.② 13.④ 14.④ 15.④ 16.④ 17.② 18.⑤ 19.③ 20.⑤

V-1 만보

1.① 2.시적화자는 자연(외물)과 화자 자신(내면)을 대조하며 시상을 전개하여 소망한 바를 이루지 못한 회한과 성찰을 나타냄. 3.④ 4.①

V-2 광문자전

1.② 2.⑤ 3.㉞ 병든 아이가 불쌍해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옴.④ 남녀평등을 주장함.④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거부함. 4.②④ 5.③ 6.④ 7.① 8.③